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 동 철*
김 정 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지역 등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공공성의 추구에 대한 의의와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사회적·경제적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실제 성과분석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로서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을, 사회적 성과로서 고용창출 효과 및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과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성과로서 고용창출 및 사회적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지역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성과 지표 확대 방향 및 정부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기업,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1. 서론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오던 영리기업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던 비영리기관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과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으로 영리기업이 소유주나 주주를 위한 이윤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사회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와 관심은 공공정책과 지역경제라는 관점으로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설립, 운영 및 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논의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정책,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한 관점은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이 해당 지역사회에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 운영 전략에서도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한 요소들이 강조된다. 특

논문접수일: 2015. 09. 30.

1차 수정본 접수일: 2015. 11. 17.

게재확정일: 2015. 11. 29.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kdch87@hanmail.net), 제1저자

**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jwkim25@kangwon.ac.kr), 교신저자

히 지역경제 범위의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자원연계를 통한 운영이 기업의 활성화와 이윤창출에서 핵심이 된다(김학실, 2012; 최혁라·김선명·김기현, 2012).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경제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산물을 지역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나아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의미는 더욱 부각된다(김용태·박재환, 2013).

사회적 기업의 특성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기업으로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정부 정책의 큰 기조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산물의 지역 내 소비 강화, 지방정부의 공공정책과 연계한 활성화 모색 등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지역 등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공공성의 추구에 대한 의미와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사회적·경제적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로서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을, 사회적 성과로서 고용창출 효과 및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율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러한 성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성과분석 방법, 지원정책 방향,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을 확대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기업의 의의

사회적 기업의 의의는 가장 먼저 개념적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주요 연구를 보면, 우선 OECD(1999)는 사회적 기업을 기업이 정신 아래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빈곤층의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을 재통합하고, 산출물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수현 외, 2013).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 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Borzaga & Santuari, 2003; 조영복, 2008; 김재인, 2012). 또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11275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관련 법은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자율적인 기업으로서의 특성과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특성을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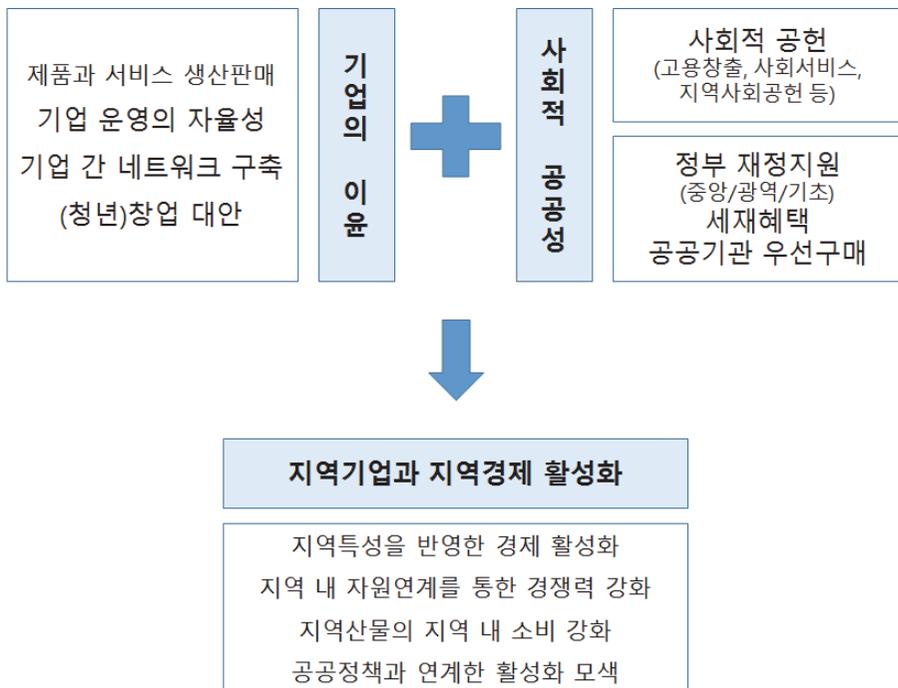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로 사회적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사회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첫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의의는 사회적 기업이 전통적인 기업모델과 동일하게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사회적 기업이 재화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최혁라·김선명·김기현, 2012). 또한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을 위한 소셜벤처 등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창업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용태·박재환, 2013).

둘째, 사회적 공공성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고용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과 같은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원

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한 고용노동부(2015b)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인증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공성과 관련한 의의를 갖는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의의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산물의 지역 내 소비 강화, 공공정책과 연계한 활성화 모색 등과 같은 지역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통합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김성기, 2011). 사회적 기



<그림 1> 사회적 기업의 의의

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지역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대안으로 시작되었다(Bengtsson & Hulgard, 2004; 최혁라·김선명·김기현, 2012). 또한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곽선화, 2011; 김학실, 2012).

2.2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요 육성 및 지원제도는 재정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및 금융·세제지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우선 재정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취약계층 고용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3년과 2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며, 참여연차별로 감소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기초컨설팅과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인 전문컨설팅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판

로지원사업에는 공동판매장 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모바일웹 개발 지원, TV홈쇼핑 방송 편성지원, 사회적 기업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2014년 기준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3,550억원(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95%)을 구매하였으며, 2015년에는 4,123억원(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10%)을 구매할 계획으로,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에서 핵심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고용노동부, 2015a).

넷째, 금융·세제지원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지원과 법인세 감면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등이 있다.

2.3 사회적 기업의 성과 분석

사회적 기업의 성과 측정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EROI(Economic Return on Investment: 경제적 투자 수익률) 등의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공공성 등과 같은 사회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투자 수익률)와 같은 평가 기법들이 등장하였다(Emerson et al., 2000; 이승규·라준영, 2010).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은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단일 성과 지표가 초기에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편향성이 존재하였다. 이후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다수의 사회적 기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사회적 성과 측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특성(유형 등)이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 경

향을 보였다(선남이·박능후, 2011; 김재홍·이재기, 2012).

사회적 기업의 성과 분석과 관련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선화(2011)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공공시장 조달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선남이와 박능후(2011)는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를 순편익,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김재홍과 이재기(2012)는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가치평가기준인 경제적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길현중(2013)은 2012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재정성과 분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출(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노무비) 및 노동생산성,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최홍근과 유연우(2013)는 인천시 남동구의 16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에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기업의 재무성과에 초점을 둔 분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선화(2011)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의 사회적 가치,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 현황,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유형, 이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김재홍과 이재기(2012)는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를 이승규와 라준영(2010)의 SROI 모델에 따라 「(사회적 편익-사회적 비용)/자산」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길현중(2013)은 관련 연구에

서 취약계층 고용(취약계층 유급근로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 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수혜인원, 수혜 대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최홍근과 유연우(2013)는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수익률(사회적 편익/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SROI 기법이 주를 이룬다. SROI 기법은 현재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추구하는 선행연구로서 이승규·라준영(2010), 조영복(2010), 김수영·박병현(2011), 조영복·류정란(2013)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조영복·류정란, 2014).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에서 전체 사회적 기업들의 비교를 위한 계량적 지표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량화가 용이한 고용창출 성과뿐만 아니라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등과 같이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수혜를 성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 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서가 아닌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집단요인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통합하는 총합 성과에 대한 연구는 세부 지표 수준에서 1~2개의 지표만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지역경제 및 공공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지표를 다양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역특성의 경우 선행연구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주로 사회적 기업 전체의 성과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범위 관점에서 광역권을 중심으

로 개별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광역권을 중심으로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이윤창출은 지역 내 자원 연계, 소비 활성화, 사회적 경제 시장 구축 등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러한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의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주체,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대한 시발점을 제시할 수 있다.

III.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모형

3.1 사회적 기업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분석한 관련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성과 지표와 측정방법을 적용하였다(이승규·라준영, 2010; 박선화, 2011; 길현중, 2013; 최홍근·유연우, 2013).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분석 모형이 기존 연구와 보이는 차이점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지표의 세분화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접근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사회적 성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던 고용창출 성과 외에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지표를 추가하였다.

경제적 성과의 성과별 지표 및 측정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성은 총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 분석한다. 총자산 증가율의 측정은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100」의 산식을 적용하며, 매출액 증가율의 측정은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100-100」의 산식을 적용하였다. 둘째, 수익성은 총자본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통해 분석한다. 총자본 이익률의 측정은 「(당기 순이익/당기 총자산)×100」의 산식을, 매출액 이익률은 「(당기 순이익/당기 매출액)×100」의 산식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당기 영업이익/당기 매출액)×100」의 산식을 적용하였다. 셋째, 안정성은 부채비율과 정부지원금 의존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부채비율의 측정은 「(당기 부채총액/당기 자기자본)×100」의 산식을 적용하였으며, 정부지원금 의존도의 측정은 「(당기 정부지원금/당기 매출액)×100」의 산식을 적용하였다.

사회적 성과의 지표 및 측정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 성과의 측정은 「고용창출 편익/고용창출 사회적 비용×100」의 산식을 적용하였다. 고용창출 편익의 구체적 측정방법은 ① 공공부문 복지예산 절감액(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평균지급액×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수), ② 취약계층 소득증대액((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 2014년 법정 최저 임금)×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수), ③ 일반근로자 소득증대액((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임금수준 - 2014년 법정 최저 임금)×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수)을 합산하였다.¹⁾ 고용창출 사회적 비용은 개별 사회적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는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1) 보건복지부(2014)의 기준에 따라 2014년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액은 329,772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4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5,21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088,890원을 기준으로 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표 1〉 사회적 기업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구분		지표	측정방법
경제적 성과	성장성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100
		매출액 증가율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100-100
	수익성	총자본 이익률	(당기 순이익/당기 총자산)×100
		매출액 이익률	(당기 순이익/당기 매출액)×100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 영업이익/당기 매출액)×100
	안정성	부채비율	(당기 부채총액/당기 자기자본)×100
정부지원금 의존도		(당기 정부지원금/당기 매출액)×100	
사회적 성과	고용창출	고용창출 성과	고용창출 편익/고용창출 사회적 비용×100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합계) =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구성원 성과급 + 지역사회 재투자 + 기타

제공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및 기타 등에 투자된 금액의 합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정책 방향,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을 확대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성과를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분석 등의 평균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한다. 평균분석에 적용된 사회적 기업 특성은 인증기간, 설립기간 및 인증유형이며, 지역 특성은 광역지역, 수도권 여부, 시군 지역 및 광역수준에서의 고용률 등이다.

사회적 기업 특성 요인 중 인증기간과 설립기간은 지속적인 성장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며,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인증기간의 경우 핵심 지원사업인 인건비 지원이 1년차, 2년차 및 3년차에 따라 차등되면서 정부 지원금의 집중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을 설정하였다. 설립기간의 경우에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이후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3년을 단위로 집단을

설정하였다. 인증유형의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사회적 기업의 핵심 성과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과 비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의 지역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이 속해 있는 광역지역을 기준으로 한 집단을 설정하였으며, 광역지역을 기준으로 한 평균분석의 경우 샘플 수의 문제로 인해 집단 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하지 않고 평균만을 비교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의 소재지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시군 지역에 대한 구분의 경우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개별 기업의 본사 또는 근무인력 비율이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집단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고용률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표의 실현에서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으로 고려하였으며, 2014년 광역단위별 고용률을 기준으로 16개 시도는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등 각각 4개 지역씩 할당하여 집단을 설정하였다.

3.2 성과분석 대상

본 연구의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대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5년 경영공시자료를 제출한 184개 기업이다. 2015년 경영공시자료는 제출한 사회적 기업의 2014년 기업 운영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84개 분석대상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인증기간은 1년차 68개(37.0%), 2년차 47개(25.5%), 3년차 이상 69개(37.5%)이며, 설립기간은 1~3년 44개(23.9%), 4~6년 70개(38.0%), 7년이상 70개(38.0%) 등이다.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 132개(71.7%), 사회서비스제공형 12개(6.5%), 지역사회공헌형 4개(2.2%), 혼합형/기타형 36개(19.6%)이며, 일자리제공형 여부에 따른 특성은 일자리제공형 132개(71.7%), 비일자리제공형 52개(28.3%)이다.

분석대상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 분포는 서울 19개(10.3%), 부산 9개(4.9%), 대구 7개(3.8%), 인천 4개(2.2%), 광주 10개(5.4%), 대전/세종 15개(8.2%), 울산 4개(2.2%), 경기 23개(12.5%), 강원 19개(10.3%), 충북 20개(10.9%), 충남 10개(5.4%), 전북 10개(5.4%), 전남 7개(3.8%), 경북 14개(7.6%), 경남 9개(4.9%), 제주 4개(2.2%) 등이다. 수도권 여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6개(25.0%), 비수도권 138개(75.0%)이며, 시군 구분은 시 지역 153개(83.2%), 군 지역 31개(16.8%)이다. 분석대상 기업이 소재한 광역지역의 2014년 고용률²⁾을 기준으로 한 특성은 상위지역(61.5%이상)(제주, 경북, 충남, 충북) 48개(26.1%), 중상위지역(60.0%이상~61.5%미만)(경기, 인천, 전남, 서울) 53개(28.8%), 중하위지역(58.0%이상~60.0%미만)(경남, 대전/세종, 광주, 대구) 41개(22.3%),

하위지역(58.0%미만)(울산, 전북, 강원, 부산) 42개(22.8%) 등이다.

<표 2> 분석대상 기업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68	37.0
		2년차	47	25.5
		3년차 이상	69	37.5
	설립 기간	1~3년	44	23.9
		4~6년	70	38.0
		7년이상	70	38.0
	인증 유형1	일자리제공형	132	71.7
		사회서비스제공형	12	6.5
		지역사회공헌형	4	2.2
혼합형/기타형		36	19.6	
인증 유형2	일자리제공형	132	71.7	
	비일자리제공형	52	28.3	
지역 특성	광역	서울	19	10.3
		부산	9	4.9
		대구	7	3.8
		인천	4	2.2
		광주	10	5.4
		대전/세종	15	8.2
		울산	4	2.2
		경기	23	12.5
		강원	19	10.3
		충북	20	10.9
		충남	10	5.4
		전북	10	5.4
		전남	7	3.8
		경북	14	7.6
		경남	9	4.9
		제주	4	2.2
수도권 여부	수도권	46	25.0	
	비수도권	138	75.0	
시군 구분	시 지역	153	83.2	
	군 지역	31	16.8	
지역 고용율	상위지역 (61.5%이상)	48	26.1	
	중상위지역 (60.0%이상~61.5%미만)	53	28.8	
	중하위지역 (58.0%이상~60.0%미만)	41	22.3	
	하위지역 (58.0%미만)	42	22.8	
전체			184	100.0

2)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인구)×100을 의미하며 통계청(2015)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 전국 평균 고용률은 60.2%이다.

IV. 분석 결과

4.1 기초 분석

분석대상인 184개 사회적 기업의 주요 측정지표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고용 근로자수와 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평균 17.0명, 일반 근로자수는 11.3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임금은 1,231천원,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은 1,527천원으로 두 집단 모두 최저임금보다 다소

<표 3> 기초 분석

구분	빈도	평균
취약계층근로자수	183	17.0명
취약계층평균임금	183	1,231천원
일반근로자수	182	11.3명
일반평균임금	182	1,527천원
자산2013	173	593,817천원
자산2014	184	689,839천원
부채2013	173	291,574천원
부채2014	184	352,511천원
자본2013	173	299,450천원
자본2014	184	332,763천원
매출액2013	163	920,844천원
매출액2014	184	1,102,288천원
영업이익2013	163	-80,037천원
영업이익2014	184	-82,866천원
당기순이익2013	162	30,875천원
당기순이익2014	184	36,272천원
지원인건비	184	55,123천원
정부지원금	184	130,474천원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에 비해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184개 기업의 재정현황을 보면 자산은 평균 689,839천원, 부채는 352,511천원, 매출액은 1,102,288천원이었다. 영업이익의 경우 82,866천원 적자를 당기순이익은 36,272천원 흑자³⁾를 보여, 전반적으로 자산과 매출액이 2013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부채와 영업이익의 적자 역시 함께 악화되었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 인건비는 평균 55,123천원이며, 인건비 외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및 기타 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지원금 총액은 평균 130,474천원으로 나타났다.

4.2 경제적 성과 분석

4.2.1 성장성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서 성장성은 총자산과 매출액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3년 대비 2014년 총자산 증가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전체 평균이 57.3%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에 따른 평균은 인증기간과 설립기간에 따른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간의 경우 1년차 기업의 총자산 성장률이 111.5%로 가장 높았으며, 설립기간의 경우에도 인증기간과 유사하게 1~3년차 기업의 평균이 1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의 연령에 따른 총자산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기업 설립 초기에 집중

3) 본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의 영업이익은 단순히 생산원가를 제외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대상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인다. 반면, 당기순이익의 경우 정부지원금, 기업 후원, 모기관 후원, 일반 기부, 기타 등과 같은 지원금이 포함되어 계산됨에 따라 적자를 보이는 영업이익과는 달리 흑자를 보이고 있다.

〈표 4〉 성장성: 총자산 증가율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73	57.3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59	111.5
		2년차	46	37.1
		3년차 이상	68	23.9
	설립 기간	1~3년	38	115.3
		4~6년	68	55.3
		7년이상	67	26.4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5	43.6	
	비일자리제공형	48	93.0	
지역 특성	광역 지역	서울	18	40.4
		부산	9	42.0
		대구	7	27.9
		인천	4	33.2
		광주	10	27.6
		대전/세종	15	104.9
		울산	4	178.0
		경기	23	33.0
		강원	12	142.4
		충북	18	40.4
		충남	9	17.1
		전북	10	26.5
		전남	7	131.5
		경북	14	14.2
	경남	9	121.6	
	제주	4	23.4	
	수도권 여부	수도권	45	35.9
		비수도권	128	64.8
	시군 구분	시지역	145	52.5
		군지역	28	82.3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45	26.1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52	48.8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41	76.6	
	하위지역 (58.0%미만)	35	87.5	

* p < 0.05, ** p < 0.01

적인 투자와 성장이 나타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증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기업의 지역특성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광역지역을 기준으로 한 총자산 성장률의 경우 경기지역(178.0%)과 강원지역(142.4%)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이 전체 평균이 76.3%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에 따른 평균은 총자산 증가율과 같이 인증기간과 설립기간에 따른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간의 경우 1년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84.5%로 가장 높았으며, 설립기간의 경우에는 1~3년차 기업의 성장률이 28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 연령에 따른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는 사회적 기업의 양적 성장이 초기에 집중되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련 지원정책에서 기업의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인증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광역 지역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경북지역(317.1%)과 서울지역(20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2 수익성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서 수익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총자본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총자본 이익률은 다음 〈표 6〉과 같이 전체 평균이 5.2%로 나타났다. 기

〈표 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62	76.3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53	184.5
		2년차	45	31.7
		3년차 이상	64	18.0
	설립 기간	1~3년	34	282.4
		4~6년	62	22.0
		7년이상	66	21.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19	98.0	
	비일자리제공형	43	16.2	
지역 특성	광역 지역	서울	16	203.4
		부산	7	0.9
		대구	7	6.1
		인천	4	13.1
		광주	10	5.2
		대전/세종	11	44.0
		울산	4	36.9
		경기	23	49.4
		강원	12	27.9
		충북	18	42.4
		충남	8	28.6
		전북	10	31.4
		전남	7	53.4
		경북	14	317.1
	경남	7	93.9	
	제주	4	17.6	
	수도권 여부	수도권	43	103.3
		비수도권	119	66.5
시군 구분	시지역	135	81.9	
	군지역	27	48.4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44	125.0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50	96.3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35	35.3	
	하위지역 (58.0%미만)	33	24.3	

* p < 0.05, *** p < 0.001

〈표 6〉 수익성: 총자본 이익률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84	5.2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68	10.2
		2년차	47	5.2
		3년차 이상	69	0.3
	설립 기간	1~3년	44	16.3
		4~6년	70	0.2
		7년이상	70	3.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2	5.8	
	비일자리제공형	52	3.8	
지역 특성	광역 지역	서울	19	6.8
		부산	9	-16.0
		대구	7	1.2
		인천	4	11.5
		광주	10	-11.4
		대전/세종	15	4.7
		울산	4	51.2
		경기	23	3.9
		강원	19	9.0
		충북	20	11.1
		충남	10	1.5
		전북	10	4.3
		전남	7	1.8
		경북	14	3.5
경남	9	13.9		
제주	4	6.6		
수도권 여부	수도권	46	5.8	
	비수도권	138	5.0	
시군 구분	시지역	153	6.0	
	군지역	31	1.0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48	6.5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53	5.2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41	2.2	
	하위지역 (58.0%미만)	42	6.6	

* p < 0.05, *** p < 0.001

업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는 인증 1년차와 설립 1~3년차 기업의 총자본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인증 유형의 경우에도 일자리제공형 5.8%, 비일자리제공형 3.8%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 특성에 따른 평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역에 따른 총자본 이익률은 울산 지역이 51.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 -16.0%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매출액 이익률은 다음 <표 7>과 같이 전체 평균이 2.2%로 총자본 이익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기업 특성에 따른 평균은 인증기간과 설립기간에 따른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증기간의 경우 1년차 기업의 매출액 이익률이 5.6%로 나타났으나, 2년차 -0.5%, 3년차 이상 0.7%로 2년차 이후 기업의 매출액 이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기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1~3년차 기업의 매출액 이익률은 7.2%로 높으나, 2년차 이후에 급격하게 낮아졌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특성에 따른 평균을 보면, 광역지역의 경우 제주지역(11.8%)과 울산지역(9.7%)의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도권 여부, 시군 구분, 지역 고용률에 따른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다음 <표 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7%⁴⁾로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에 따른 평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보였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특성에 따른 평균차이는 수도

권 여부와 지역 고용률 수준에 따른 집단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8.4%로 수도권 지역의 -7.5%에 비해 적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고용률의 경우에도 중하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적자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영업이익률의 경우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일반 기업과 같이 이익극대화에 있지 않고,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이러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과 고용률이 낮은 지역의 영업이익률의 적자 수준이 더욱 높다는 측면에서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성장성과는 달리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4.2.3 안정성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서 안정성은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비율과 정부지원금 의존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부채비율은 다음 <표 9>와 같이 전체 평균이 253.5%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에 따른 평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인증 1년차(510.5%)와 설립 1~3년차(773.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184개 사회적 기업의 2014년 영업이익 평균과 매출액 평균은 <표 3>과 같이 각각 -82,866천원, 1,102,288천원으로 이들 단순 평균을 가지고 계산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표 8>의 전체 평균과 달리 7.6%이다. 이는 양(+)로 이루어진 매출액과 달리 영업이익의 경우 적자(-)와 흑자(+)가 섞여 있어 단순 평균을 바탕으로 한 이익률과 개별 분석대상의 이익률의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서 실제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표 8>의 평균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표 3>의 단순 평균은 전체 분석대상의 일반적 수준을 판단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수익성: 매출액 이익률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84	2.2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68	F=3.194 df=2 p=0.043*
		2년차	47	
		3년차 이상	69	
	설립 기간	1~3년	44	F=3.668 df=2 p=0.027*
		4~6년	70	
		7년이상	7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2	t=0.657 p=0.512	
	비일자리제공형	52		
지역 특성	광역 지역	서울	19	-
		부산	9	
		대구	7	
		인천	4	
		광주	10	
		대전/세종	15	
		울산	4	
		경기	23	
		강원	19	
		충북	20	
		충남	10	
		전북	10	
		전남	7	
		경북	14	
	경남	9		
	제주	4		
수도권 여부	수도권	46	1.7	t=-0.248 p=0.804
	비수도권	138	2.3	
시군 구분	시지역	153	2.4	t=0.461 p=0.646
	군지역	31	1.1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48	1.5	F=0.479 df=3 p=0.697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53	1.5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41	1.6	
	하위지역 (58.0%미만)	42	4.5	

* p < 0.05

〈표 8〉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84	-30.7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68	F=0.880 df=2 p=0.417
		2년차	47	
		3년차 이상	69	
	설립 기간	1~3년	44	F=0.109 df=2 p=0.097
		4~6년	70	
		7년이상	7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2	t=0.283 p=0.777	
	비일자리제공형	52		
지역 특성	광역 지역	서울	19	-
		부산	9	
		대구	7	
		인천	4	
		광주	10	
		대전/세종	15	
		울산	4	
		경기	23	
		강원	19	
		충북	20	
		충남	10	
		전북	10	
		전남	7	
		경북	14	
	경남	9		
	제주	4		
수도권 여부	수도권	46	-7.5	t=4.041 p=0.000***
	비수도권	138	-38.4	
시군 구분	시지역	153	-29.4	t=0.845 p=0.399
	군지역	31	-37.2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48	-27.6	F=5.021 df=3 p=0.002**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53	-13.5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41	-47.5	
	하위지역 (58.0%미만)	42	-39.4	

** p < 0.01, *** p < 0.001

〈표 9〉 안정성: 부채비율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84	253.5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68	510.5
		2년차	47	142.2
		3년차 이상	69	76.0
	설립 기간	1~3년	44	773.1
		4~6년	70	22.0
		7년이상	70	158.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2	215.7	
	비일자리제공형	52	349.3	
지역 특성	광역시역	서울	19	-9.0
		부산	9	211.0
		대구	7	372.8
		인천	4	141.2
		광주	10	260.5
		대전/세종	15	438.8
		울산	4	346.9
		경기	23	178.6
		강원	19	76.3
		충북	20	92.2
		충남	10	196.8
		전북	10	201.8
		전남	7	99.6
		경북	14	-202.6
	경남	9	2284.6	
	제주	4	338.9	
	수도권 여부	수도권	46	97.9
		비수도권	138	305.4
	시군 구분	시지역	153	172.8
		군지역	31	651.8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48	48.5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53	98.1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41	789.2	
	하위지역 (58.0%미만)	42	160.8	

정부로부터 공공재원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경제적 성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 〈표 10〉과 같이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지원금 의존도 평균은 33.4%로 나타났으며, 전체 지원금 중 인건비 지원이 42.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에 따른 의존도는 인증기간과 설립기간에 따른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1년차 39.7%, 2년차 37.1%, 3년차 24.8%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되는 취약계층 인건비가 최대 3년까지 차등 지원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립기간의 경우에도 1~3년차 45.1%, 4~6년차 33.1%, 7년차 이상 26.4%로 인증기간과 동일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증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 34.3%, 비일자리제공형 31.2%로 비슷한 수준의 의존도를 보였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특성에 따른 정부지원금 의존도 평균은 수도권 여부와 지역 고용률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이 41.0%로 수도권 지역 10.6%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역 고용률이 낮은 지역의 정부지원금 의존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역에 따른 의존도는 제주지역(54.4%)과 경북지역(46.6%)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사회적 성과 분석

4.3.1 고용창출 성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로서 고용창출 성과는 사회적 기업이 발생시키는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성과 분석 결과는

〈표 10〉 안정성: 정부지원금 의존도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84	33.4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68	39.7
		2년차	47	37.1
		3년차 이상	69	24.8
	설립 기간	1~3년	44	45.1
		4~6년	70	33.1
		7년이상	70	26.4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2	34.3	
	비일자리제공형	52	31.2	
지역 특성	광역시 지역	서울	19	5.6
		부산	9	37.7
		대구	7	53.2
		인천	4	22.8
		광주	10	73.7
		대전/세종	15	35.1
		울산	4	45.0
		경기	23	12.7
		강원	19	44.0
		충북	20	26.8
		충남	10	20.2
		전북	10	45.8
		전남	7	51.3
	경북	14	46.6	
	경남	9	27.6	
	제주	4	54.4	
	수도권 여부	수도권	46	10.6
		비수도권	138	41.0
	시군 구분	시지역	153	32.2
		군지역	31	39.3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48	33.5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53	16.0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41	45.9	
	하위지역 (58.0%미만)	42	43.2	

* p < 0.05 *** p < 0.001

다음 〈표 11〉과 같이 전체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창출 성과의 수준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따른 고용창출 성과는 인증기간과 설립기간에 따른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3년차 이상 76.0%, 설립 7년차 이상 71.9%로 기업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창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은 사회적 기업일수록 시장에서의 우수한 경쟁력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최대 3년이라는 점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령이 많은 기업의 인건비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증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 36.1%, 비일자리제공형 3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 특성에 따른 고용창출 성과는 수도권 여부와 지역 고용률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여부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115.6%로 15.2%를 보인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다. 지역 고용률에 따른 성과는 중상위 지역이 9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 구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시 지역 40.8%, 군지역 9.5%로 도심지역의 고용창출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광역지역에 따른 고용창출 성과는 경기지역이 171.3%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4.3.2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로서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이 전체 평균이 90,27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표 11〉 고용창출 성과

(단위: 개/%)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48	34.8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62	F=4.292 df=2 p=0.015*	
		2년차	42		12.2
		3년차 이상	44		76.0
	설립 기간	1~3년	41	F=4.108 df=2 p=0.018*	
		4~6년	60		25.5
		7년이상	47		71.9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15	t=0.242 p=0.809		
	비일자리제공형	33		30.6	
지역 특성	광역 지역	서울	8	-	
		부산	8		22.2
		대구	6		10.3
		인천	4		31.8
		광주	9		3.8
		대전/세종	13		48.5
		울산	4		10.1
		경기	17		171.3
		강원	18		5.2
		충북	17		12.8
		충남	9		7.6
		전북	8		22.9
		전남	7		5.2
		경북	9		10.5
	경남	9	16.5		
	제주	2	9.1		
	수도권 여부	수도권	29	t=4.500 p=0.000***	
		비수도권	119		15.2
	시군 구분	시지역	120	t=1.305 p=0.194	
군지역		28	9.5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37	F=4.656 df=3 p=0.004**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36		94.1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37		23.6	
	하위지역 (58.0%미만)	38		13.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2〉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단위: 개/천원)

구분		빈도	평균	통계량	
전체		119	90,271	-	
기업 특성	인증 기간	1년차	49	F=1.433 df=2 p=0.243	
		2년차	24		112,223
		3년차 이상	46		105,896
	설립 기간	1~3년	32	F=5.977 df=2 p=0.003**	
		4~6년	41		69,021
		7년이상	46		141,81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89	t=1.788 p=0.076		
	비일자리제공형	30		51,578	
지역 특성	광역 지역	서울	15	-	
		부산	4		46,997
		대구	3		91,643
		인천	3		70,675
		광주	6		17,367
		대전/세종	12		69,827
		울산	4		44,639
		경기	11		140,075
		강원	12		77,431
		충북	11		63,137
		충남	7		83,717
		전북	4		108,432
		전남	6		113,575
		경북	9		107,777
	경남	8	150,098		
	제주	4	59,878		
	수도권 여부	수도권	29	t=1.247 p=0.215	
		비수도권	90		81,320
	시군 구분	시지역	98	t=-0.109 p=0.914	
군지역		21	93,270		
고용률	상위지역 (61.5%이상)	31	F=0.656 df=3 p=0.581		
	중상위지역 (60.0%이상 ~61.5%미만)	35		117,299	
	중하위지역 (58.0%이상 ~60.0%미만)	29		83,374	
	하위지역 (58.0%미만)	24		72,060	

** p < 0.01

대한 평균 정부지원금 130,474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69.2% 수준이 다시 사회적으로 재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특성에 따른 재투자 성과는 설립기간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기간별 재투자 금액 평균을 보면, 1~3년차 43,424천원, 4~6년차 69,021천원, 7년차 이상 141,812천원으로 나타나 기업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역 특성에 따른 재투자 성과의 경우 광역 지역은 경남지역(150,098천원)과 경기지역(140,075천원)의 성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 특성에 따른 재투자 성과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4 분석 결과 종합

184개 사회적 기업의 2014년도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성과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보였으나, 기업 연령과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성의 경우 기업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수익성은 지역 간 격차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안정성의 경우 정부지원금 의존도가 전체 평균이 33.4%로 나타났고, 기업의 연령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중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기업에 대한 적절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중 지역고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성과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며, 기업의 연령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고용창출 성과에서 인증유형인 일자리창출형과 비일자리창출형의 성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력의 하나인 일자리창출형 기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증유형을 구분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성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지역 등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관련 지표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관련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기업 모델에서 활용되는 경제적 성과의 경우 일정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사회적 성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제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공헌

에 대한 계량화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평가가 요구된다(Garengo et al. 2005; 최홍근·유연우, 2013). 특히 전체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총량적 분석이 아닌 기업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표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공시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영공시제도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원사업에 신규참여 및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공시 내용들 중 기업 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의 계량화를 추진해야 한다(Melinda, 2008; 조영복·류정란, 2014). 사회적 공헌의 경우 개별 기업별로 상이한 공헌 성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성과를 비교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회적 기업들을 모델화를 통해 전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활성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기업 특성과 지역 특성에 따른 성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지원사업의 수립 및 추진에서 이들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과 개별 광역정부 수준에서의 지원 사업들 모두 기업 특성과 해당 지역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업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기업에 대한 적절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중

지역 고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 및 관련 학계의 전문적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김재인, 2012).

본 연구의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기업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 조직형태, 사업 분야,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과 같은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유형별 비율 등과 같은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샘플수와 관련 특성 지표의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지원 사업 및 공공정책의 방향 수정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이도희·김현미, 2014).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다른 조직들과 연계된 수준을 고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계 효과 및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3),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3호).
- 고용노동부(2015a),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 고용노동부(2015b),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 곽선화(2011),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길현중(2013),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기(2011), "지방정부의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개발 방안: 남양주시 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4)1, 26-54.
- 김수영, 박병현(2011), "마이크로크레딧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SROI 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277-304.
- 김용태, 박재환(2013), "사회적기업 창업성과 영향요인 연구," **경영교육연구**, 78, 303-327.
- 김재인(2012),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67-88.
- 김재홍, 이재기(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4), 1037-1064.
- 김학실(2012),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16(1), 259-277.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선남이, 박능후(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141-164.
- 이도희, 김현미(2014), "사회적기업, 사회성인가 기업성인가?: 근거이론의 상황모형과 과정분석을 중심으로,"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4(3), 175-198.
- 이승규, 라준영(2010),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사회투자수익률(SROI)," **벤처경영연구**, 13(3), 41-56.
- 정수현, 김숙연, 김재환, 이정화(2013),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가치가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4(5), 229-249.
- 조영복(2008),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노동부.
- 조영복(201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경제**, 1-12.
- 조영복, 류정란(2013),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 시그마프레스.
- 조영복, 류정란(201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그 접근법과 발전방향 모색,"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475-494.
- 최혁라, 김선명, 김기현(2012),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308-317.
- 최홍근, 유연우(2013),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시 남동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351-378.
-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 Bengtsson, S., and L. Hulgard(2004), *Denmark: Co-operative Activ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Borzaga, C., and A. Santuari(2003). New trends in the non-profit sector in Europe: The emergen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31-59.
- Emerson, J., J. Wachowicz, and S. Chun(2000),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xploring aspects of value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The Box Set: Social Purpose Enterprises and Venture Philanthropy in the New Millennium*, 2, 130-173.
- Garengo, P., S. Biazzo, and U. Bititci(2005),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n SMEs : A Review for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7(1), 25-47.
- Melinda, T. T.(2008), *Measuring and/or Estimating Social Value Creation: Insights into Eight Integrated Cost Approaches*,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Seattle.
- OECD(1999), *Social Enterprises. Social, Fund and Local Development Unit*.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A Study on Achievement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Dongchul Kim* · Jung-Won Kim**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conomical and social achievements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achievements according to the features and regions of social enterprises. For this, theoretical reviews were made on the significance of pursuing profits for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fairness, as well as for the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al and economical achievement assessment. The actual achievement analysis was made focused on growth, profitability and safety for economic achievements and job creation effects and social re-investments of profits for social achievements based on the 2015 management data of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overall achievement analysis results showed a level of economic achievement, but for social achievements, while there were job creation and social re-investments, it was found to have high dependency on government support for wages. Furthermore,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features and regions of social enterprises.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expanding performance indices and improvement plan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hrough this, policy plans were examined to promote regional economies, create jobs within communities, and to expand social contribution.

Key Words: Social Enterprises, Economical Achievement, Social Achievement

* Lecture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